

봉은신도 IMF극복 운동

회원 업종별 주소록제작 등 '서로돕기' 전개

총체적 IMF극복을 맞아 불자 상호간의 교류와 국난극복을 위한 불자서로돕기 운동을 선언하고 나선 신도단체가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서울 삼성동 봉은사 신도회(회장 이차갑)가 펼치고 있는 '봉은불자서로돕기운동'이 바로 그것. 봉은불자서로돕기운동은 신도가 운영하는 상점 또는 사업체를 책자에 소개해 필요한 물품 구입시 신도회원들의 업체를 애용함으로써 우호증진과 신심함양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신도회는 봉은사불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점과 사업체를 소개하는 봉은불자사업안내책자 BBN(Bong eun Business Network)발간 준비작업에 착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책자에는

봉은사 신도만 참여할 수 있으며 1차적으로 3백여곳의 상호와 사업체를 신청받아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5천여부를 제작해 봉은사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신도회는 사업안내책자가 반응이 좋으면 지면을 확대해 계속 발행할 계획이다. 또 신도회는 봉은불자서로돕기 일환으로 상호회를 활성화한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신도중에 실적이 나 명예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로하는 한편 각종 애경사를 통해 회원들간에 불심과 화합을 다지는 것. 이밖에도 신도회는 서로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추진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차갑 봉은사 신도회장은 "그

동안 바로옆에서 법회를 보는 법우가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였다"고 지적하고 "봉은불자서로돕기 운동을 통해 신심증대, 교류 및 단합등 신도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한파로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봉은사 신도회가 펼치고 있는 불자서로돕기운동은 각 사찰 신도회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근 기자>



◇13일 석방된 진관스님(가운데)이 지선스님(왼쪽)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진관스님 석방

15대 대통령 취임 특별사면

96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이 13일 제15대 대통령취임 축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건강한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온 진관스님은 "아직도 5백여명의 양심수들이 갇혀 있는데 먼저 나와 미안하다"며 "양심수 없는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관스님은 구치소를 나온 직후 조계사로 출발, 대웅전에 참배하고 조계종총무원장 원주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선스님(백양사 주지)과 지명스님(심천불교승가회 사무처장) 박강희씨(불교인권위 전사무처장)를 비롯 불교인권위 전국불교운동연합 심천불교승가회 회원 20여명이 나와 진관스님의 석방을 맞았다.

뉴스 & 뉴스

北 대장경해제 25권 출간

북한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팔만대장경 해제) 25권을 편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한방송은 '민족의 자랑 팔만대장경'이라는 제목의 프로에서 <팔만대장경 해제>는 원전에 수록된 1천 5백37종 6천7백93권의 서적의 내용을 전부 소개하고 종별로 개괄적인 설명을 해놓았다고 보도했다.

동국대 룸비니관 기공

동국대(총장 송석규)는 과학과 뒷편에 식당전용 건물인 룸비니관을 건설키로 하고 11일 기공식을 가졌다.



연면적 1천6백여평 규모의 지하층 지상 3층 건물로 건설되는 룸비니관은 학생들과 교직원의 휴식공간을 위해 마련, 내년 2월 완공예정이다.

에밀레종 보호막 백지화

성덕대왕신종(국보 29호)을 종화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리보호막 설치계획이 백지화돼 원형에서 재검토된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강우방)은 "성덕대왕신종에 대한 전문기관의 종합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대책을 수립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6월에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자연풍풍이 잘 되는 상태에서 보존할 수 있는 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교리' 고복식 4월로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17일로 예정됐던 '불교교리' <통일법요집> 출판기념회(통일법요집)의 재편집관개로 인쇄가 늦어짐에 따라 4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그러나 <불교교리>는 예정대로 16일 발행했다.

옥련선원 뒤 교회수양관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백산에 위치한 옥련선원(주지 상훈) 50m 후방에 교회 청소수양관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자연녹지와 사할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수영로교회측이 건립 계획 중인 연건평 4백평규모의 지하 2층, 지상 8층 청소수양관은 해발 1백29m의 백산 중턱인 해발 50m에 세워질 예정으로, 진입로와 대지 6백평 조성을 위해 녹지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백산보호운동연합(공동대표 김만병)과 지역주민 5백여명은 지난 27일 부산MBC 사옥앞에서 교회 수양관 건립에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수영구청을 방문, 4천여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신협, 서민경제 동반자 역할

부산불교신협등 전국 10곳...저리대출 장점

불자 경제협력체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교계신협들이 IMF시대 서민경제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교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협은 부산불교신협, 광주 관음사신협, 조계사신협, 원주 성불신협, 속초 신종사신협, 대구 보현신협, 태고종신협, 광주 향림사신협, 능인선원신협, 청주 삼원용화사신협 등 10곳. 이들신협은 연 12%~19%에 이르는 금리와 14.5%~18%선에서 적용되는 대출금리로 고금리 시대에 서민들이 안심하고 목돈을 빌릴 수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예고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산망을 갖추고, 지로·자금이체·현금자동입출금·공과금 수납·어음할인 등 은행수준의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지역불자들의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 있는데, 호응이 아주 좋다"고 말했다.

원주 성불신협(이사장 현각)의 경우는 94년 개설한 명륜동의 본소에 이어 지난해 10월 원동에 성불신협지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불자들의 동참확대와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 교계신협들이 금융개방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하며, 지역 불교포교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불자들의

참여와 신협자체의 다양한 서비스개발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이은자 기자>

홍콩 흥법원 신도들

금모아 고국에 헌납

대한불교조계종 흥법원(주지 성문) 신도들이 금모아기운동을 벌여 지난 9일 그동안 모은 금 450g(6천6백만원 상당)을 국가에 헌납해달라며 추경용 한국총영사관에 기탁했다. 신도들은 지난 1월부터 조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발원하며 금모아기운동을 펼쳐왔다.

훈할머니 이달말 영구귀국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지 반세기만인 지난해 고향과 혈육을 찾은 훈할머니 이남이(73)씨가 이달말에 영구귀국한다.

훈할머니들이 불교후원회(공동회장 설호·법타·법조)는 8월 "지난해 10월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캄보디아 국적포기 절차를 밟아 온 훈할머니는 최근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이달말에 귀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머니와 헤이룽장성 동맹현에 사는

지들이(75) 김숙란(75) 이봉운(76) 할머니.

나눔의집은 이들 가운데 2명의 가족이 국내에 살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지들이 김숙란 할머니에 대해 한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나눔의집에 있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가칭)은 8월15일 광복절로 개관이 연기됐다. (0347)768-0064

"위안부할머니 5명

중국에 살고있다"

헤진스님 확인

일제 때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다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할머니 5명의 생존 사실이 나눔의집 원장 헤진스님 부대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지역불자들의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월25일 '금식의 날'

4월25일이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 금식의 날로 지정됐다.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 한국위원회(공동대표 강문규)는 12일 월주스님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4월25일을 북한동포를 위한 금식의 날로 지정, 세계 주유도 시에서 금식과 모금행사를 벌인 다"고 밝혔다.

군법당 운영 신도참여 제도화

군승단, 새규정 마련...매달 재정보고 의무화

군승단(단장 이희용)은 군법당의 재정 투명성과 합리적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 '군승단 규정(안)'을 마련, 이달 말 열리는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군승단 기획국내 제도정비위원회(위원장 강보승 법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규정(안)은 △군법당의 투명한 운영과 군법사의 임무 △감사와 상벌에 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법당 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신도들의 불전함 관리 등 법당운영 참여를 제도화했다.

또 모든 군법당은 매달 군승단에 재정보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군승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결산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군승단의 자정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군승단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결산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군승단의 자정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입문→교리→경전→전문심화교육

4단계 신도교육체계 마련

조계종 포교연구실

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은 신도교육의 해에 따른 '신도교육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신도교육(안)에 따르면, 입문(초급) 교리교육(중급) 경전교육(고급) 전문심화교육 등 4단계로 나눠 교재 및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각 교육과정의 교재 및 실천수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입문교육: <불교입문>, 수식관, 6개월~1년. 이 과정을 이수

하면 삼귀의계를 수계한다. △교리교육: <불교교리>, 지관선, 1년, 불자5계 수계. △경전교육: 기본경전 <아함경>, 간화선, 4년, 보살계 수계.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범성남은 11일 "각 사찰의 상황이 천차만별이므로 신도교육 체계의 일괄적 적용 어렵다"며 "올바른 신도교육을 위한 하나의 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교연구실은 4월중 신도교육 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직자들이 재기의 의지를 가다듬고 경제 입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바로 IMF힐터들이다. 지난 1월부터 문을 열기 시작한 웬만한 지역 사찰에서는 이미 힐터를 운영중이거나 단기출가 수련회 등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실직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순수한 뜻에서 시작된 이들 힐터는 그러나 문을 연지 한달여만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각종 사무기와 취업정보 등을 갖춰 놓았지만 정작 찾아오는 실직자들이 거의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버린 곳도 있고, 어렵게 실직자의 취업을 알선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자격 부적합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되돌아 오기 일수기 때문

이다.

대구 불교사회복지회 부설 남구희망의심터 이호준소장은 "실직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문을 열었지만 현실에서 재취업의 벽은 너무도 높다. 각 힐터에서 실직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마련한 참선, 사경, 영화상영 등의 프로그램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단순한 복지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적극적인 힐터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단기출가수련회, 귀농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실직자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면 실직자들의 정서적 불안은 함께 해소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따라서 개별단체의 일시적 방편으로써가 아니라 힐터, 무료직업소개소, 단기출가수련회 등의 적절한 활용과 교류로 실직인력 활용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IMF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따뜻한 인간애, 공감증세의 삶을 돌아보게 했다. 교계의 힐터들은 바로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도량이다. 실직자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힐터운영의 방향을 다시한번 점검해야 할 때다.



이은자 <취재1부 기자>

봉 축 현 수 막

블기2542년

奉

祝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종 ○○사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아기부처님 관욕의식을 상징화하여 한울기획에서 현수막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 아기부처님 관욕의식을 기념하고 한량없는 공덕을 쌓는 신행의 표본입니다.

- 부처님 오신날 현수막에 아기 부처님을 칼라로 넣어서 제작해 드립니다.
- 공정이 복잡하여 미리 주문을 받고 있으니 미리 신청하여 주십시오.

앞으로도 큰스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가격 90cm × 6m = 35,000 (그외의 현수막은 상담후 결정)

한울기획 T. (02)474-2040~1 F. (02)477-2316

현수막 1장 주문하시면 등꼬리표 100장을 드립니다.

여성질병의 원인과 항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니애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민첩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 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활력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뼈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있다. ()
18. 당노회갑상선으로 통발한다.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항비를 사용한 체질법

참고

를 사용해 보세요!

저는 1년 1년을 둔 가장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 인체 성분으로 만든 '항비' 라는 배꼽에 착용하는 제품을 소개해 주셨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고 방광염도 사라졌고 피부가 고와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남아도 없고 잘 받고 기미도 없어지고 활력이 장담되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 시한번 항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꼭 권해 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지희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학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